들깨 생산의 모든 과정 기계로 해결 가능하네?

농진청, 아주심기부터 수확까지 처리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작업시간 58.1% 절감 효과… 오늘 증평서 현장평가회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들깨 생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식(아주심기)부터 수확까지 생산의 모든 과정을 기계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들깨는 항산화, 치매 예방 효과 등 건강 증진에 좋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받는 식품 중 하나로 2019년 기준 재배면적은 약 3만 7,000헥타르(ha)이다.

들깨 생산 과정중 경운(흙갈이)과 땅 고르기, 피복(덮기), 방제 등은 기계로 할 수 있으나 정식, 수확 등은 기계가 대신하기 어려워 대부분 인력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에 농진청이 개발한 기술은 들깨의 정식, 베기, 탈곡, 선별 등이 가능한 밭농업기계화 작업체계다.

우선 들깨를 기계로 심기 위해서는 규격화된 육묘(모 기르기) 상자에 균일하게 씨를 뿌린 뒤 25~30일 길러 작물 길이가 20㎝ 이하가 됐을 때 40~50㎝ 간격으로 심으면 된다.

자동으로 모종을 뽑아 심어주는 자동식 정식기는 운전자 혼자서 작업할 수 있으며, 한 두둑에 한 줄씩 심고 간격은 10~70㎝ 내에서 조절할 수 있다. 사람이 육묘 상자에서 모종을 뽑아 정식기에 공급하면서 심는 반자동식 정식기는 운전자와 모종 공급자 등 2인이 필요하며 한 두둑에 한 줄씩 심고 간격은 20~60㎝ 내에서 조절할 수 있다.

들깨 정식기는 10아르(a)당 약 1.5~2.0시간 정도 소요돼 기존의 인력 정식(10.4시간)보다 작업 시간을 81~86% 줄일 수 있다.

들깨 예취기는 1조식 보행형으로 1줄씩 베어 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모아준다.

참깨, 콩 등 다양한 작물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10아르(a)당 1시간이 들어 낫으로 벨 때(13.3시간)보다 92% 작업시간을 줄일 수 있다.

들깨 탈곡기는 들깨를 떨어내는 기계로 참깨에도 적용할 수 있다. 2명의 작업자가 10아르(a)의 들깨를 1시간에 탈곡할 수 있어 도리깨로 탈곡할 때(8.4시간)보다 작업 시간이 88% 줄어들었으며, 탈곡 손실률도 3% 이하로 양호하다.

들깨 정선기는 탈곡한 들깨에 섞인 돌 등 이물질을 골라주는 기계로 정선기와 석발기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정선과 석발 작업을 동시에 하거나 따로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개발한 작업체계를 적용하면 들깨 생산에 드는 작업 시간은 10아르(a)당 27.4시간으로, 기존 인력작업의 65.4시간보다 58.1%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농진청은 오늘 충북 증평에서 현장평가회를 열어 작업체계를 설명하고, 종합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최 용 밭농업기계화연구팀장은 "이번에 선보인 기술을 들깨 주산단지 영농법인과 작목반 등에 우선 보급해 생산성을 최대화하겠다"라며, "나아가 들깨 생산 기계화 단지 조성에 활용해 우리 농촌의 노동력 문제 해결,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저장성 좋은 국산 단감 '로망'

좋아 수출용으로 알맞은 품종이다.

14일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 시험 재배지에서 연구원이 국산 단감 품종인 '로망'을 수확하고 있다. '로망'은 당도가 18.6브릭스로 매우 높고 저장성이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 연장

전북은행, 내년 3월까지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도내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피해기업 금융지원을 2021년 3월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전북은행에서 실시한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 특별자금 지원이 9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후속조치다.

주요 지원내용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업체당 최고 5억 원을 한도로 신규지원하며, 최대 1.0% 금리혜택을 지원해준다.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별도 원금상환 없이 기한을 연장하고, 분할상환금과 이자 또한 유예 가능하다.

최초 금융지원 시행인 2월 5일부터 9월말까지 신규지원 2,973억원, 대출만기연장 6,500억원, 금리인하 2억원, 상환유예 27억원을 지원하여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있다.

임용택 은행장은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지역에도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입은 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연장조치로 경기침체와 내수부진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전북은행 영업점 및 고객센터(☎1588-4477)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도-전북생진원, 베트남 바이어 초청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

전북도는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이하 생진원)과 함께 도내 농수산식품 수출시장개척을 위한 베트남 농수산식품 바이어 초청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를 오는 16일 오후 1시부터 생진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도내 농식품 기업들의 해외 수출 공백을 최소화하고 해외 판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해 기업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비대면 온라인 화상상담으로 진행돼 전북 농식품 기업의 비대면 마케팅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현지 바이어와 협의를 통해 제과, 음료류 등을 상담 품목으로 정했고 최종적으로 도내 4개 업체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인권경영협의체, 존중 캠페인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인권경영협의체(이하 인권경영협의체)가 지역사회의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민연금공단, 전북개발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전북혁신도시 5개 기관의 인권경영 담당자로 구성된 인권경영협의체는 지난 13일, 전북혁신도시에서 '인권존중 캠페인'을 실시하며 지역주민에게 인권존중 문화를 전파했다.

이 날 참여자들은 인권존중 어깨띠를 착용하고 인근 자영업 커피전문점 약 60개에 인권존중 메시지가 담긴 컵홀더를 제작해 나누며, 우리 일상에 존재할 수 있는 성차별·아동차별·인종차별 등 차별금지와 갑질,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근절의지를 알렸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조성완 사장은 "인권 친화적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군산 짬뽕라면, 수도권 간다

지역 특산물 '흰찰쌀보리' 이용

전북농협-군산시-군산대 공동 개발

롯데백 잠실점 식품판매장서 입점

전북농협(박성일 본부장)은 군산원예농협(고계곤 조합장)이 군산시·군산대학교와 함께 개발한 '군산짬뽕라면'이 롯데백화점 잠실점 식품관(프리미엘)에 입점했으며, 식품판매장에서 '군산짬뽕라면', '뽀사뿌까', '군산불짬뽕컵면'을 손쉽게 만나볼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롯데백화점 잠실점 프리미엘 관계자는 "군산짬뽕라면은 일반적인 라면이 아닌 전북 특산품으로 지정될 만큼 전북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으며 군산에서 생산되는 흰찰쌀보리와 국내산 재료로 라면을 만들어, 군산짬뽕라면을 찾는 고객이 꾸준히 늘고 있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군산짬뽕라면은 군산 특산물인 흰찰쌀보리를 이용해 만든 라면으로 속이 편안하고 군산의 짬뽕맛을 살려낸 것이 특징이다. 이미 수도권에 하나로마트 양재점, 창동점 등 수도권 5대 대형 하나로 마트에 입점했으며, 온라인으로도 성황리에 팔리고 있다.

군산원예농협 고계곤 조합장은 "군산지역 농산물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던 소망이 조금이나마 이루어진 거 같아 매우 기쁘고 입점을 진행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롯데백화점 식품관 관계자와 군산원예농협 임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군산지역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열심히 연구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농협은 군산원예농협과 함께 군산짬뽕라면 출시전 라면시장 유통을 대비하기 위해 농협유통, 하나로유통 등에 입점관련 협의를 했으며, 출시후에는 직거래장터, 온라인몰(농협몰) 기획전 등에서 군산짬뽕라면을 홍보·판매해왔다. 또한 농협전북지역본부 1층 전북농특산물 홍보전시관에 군산짬뽕라면, 뽀사뿌까를 전시·홍보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새만금개발청, 호텔리조트 투자 컨퍼런스 참가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14일~15일 비대면(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제5회 2020 한국호텔리조트투자컨퍼런스'에 참가했다. 이 컨퍼런스(학술회의)는 국내외 호텔리조트 운영사, 건설사, 투자자, 금융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호텔리조트관련 투자유치를 위한 행사이다.

올해는 글로벌 호텔리조트 투자개발 사례와 전망분석, 코로나 19이후 호텔리조트 투자여건과 기회, 1:1 온라인 투자상담, 초청연사 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날 개발청은 새만금 주변의 고군산군도와 변산반도국립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개발에 돌입한 신시야미지구, 관광레저용지 초입지 그리고 세계잼버리대회 용지 등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새만금의 미래 비전과 함께 관광산업 활성화의 필수 요소인 국제공항, 신항만 등 핵심 기반시설 조성사업 일정, 계획 등을 소개해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유호상 기자

전북중소벤처기업청은 14일 완주군 소재 업체인 '봉강요(도자기 제조)'에서 백년소공인 확인서 전달 및 인증 현판식을 개최했다.

전북중기청, 완주 '봉강요' 백년소공인 현판식

전북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 이하 전북중기청)은 14일 완주군 소재 업체인 '봉강요(도자기 제조)'에서 백년소공인 확인서 전달 및 인증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북중기청과 완주군,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숙련기술과 성장역량을 함께 갖추고 1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소공인의 지속경영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년소공인 현판식 행사를 진행한 '봉강요'는 20여 년간 축적된 도자기술(분청사기)을 기반으로 각종 대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받은 것은 물론, 현재는 고객 맞춤형 주문 제작을 위한 스마트 공정 도입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판매까지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

전북중기청에서는 봉강요를 시작으로 11월 중순까지 전북지역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세신정공, 명성기어정밀, 금광산업, 성심연마, ㈜신흥종합주방설비, 지엠테크(이상 기계·금속분야), 해풍영농조합법인(식료품 분야), 풀빛이엔씨, 성일한지(기타분야) 등 총 10개 업체의 현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영구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74호 입주자 모집 마감

군산 나운4·익산 부송1

LH전북지역본부(본부장 권창호)는 군산나운4와 익산부송1 영구임대주택의 그린리모델링세대 총 74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마감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산나운 4단지는 지난 9월 25일부터 28일까지의 그린리모델링 세대통합형 33호에 대한 입주자 신청 모집에 86세대가 신청해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익산부송 1단지도 10월 5일부터 8일까지의 그린리모델링세대 41호에 대한 입주자 신청 모집에 97세대가 신청해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그린리모델링 사업대상 영구임대단지는 군산나운4, 익산부송1 등 2개단지이며, 연접된 2세대의 비내력벽을 철거하여 소형평형(전용 26㎡)을 넓은 평형(전용 52㎡)으로 리모델링하는 세대통합형과 장기간 공가로 남아있는 26㎡평형을 활용해 주거편의 개선·주거약자를 위한 무장애공간 설계 등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단일세대형 리모델링 두가지 유형으로 추진중에 있다.

당첨자 발표는 익산부송 1단지는 12월 23일 이후, 군산나운4 단지는 12월 31일 이후에 LH청약센터 및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국민연금,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 연구보고서 발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 국민연금연구원은 시각장애인용 2019년도 주요 연구보고서 요약집을 10월 중 배포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하는 요약집은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분야별 주요 연구보고서 12종의 요약본이 수록되었으며, 시각장애인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큰 활자와 점자로 제작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의 점자 도서관,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 180여 곳에 배포해 시각장애인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공단은 연구성과의 사회적 공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지난 3월 2019년 연구보고서 29종을 공개한 바 있다. 특히, 작년부터는 연구자료에 대한 활용도 및 접근성이 취약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연구 결과 요약집을 제작해왔다. 올해에는 더 다양한 분야의 연구성과 공유를 위해 연금제도 외에 기초연금, 패널조사 및 기금평가 분야 연구보고서가 새롭게 추가됐다. /김윤상 기자

전북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금융혁신 역량강화 아카데미

전북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핀테크 창업기업의 대표와 직원이 참여한 '금융혁신 역량강화 아카데미'를 14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도내 핀테크 창업기업의 역량강화와 안정적인 기업성장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전문가 초청을 통해 국내외 핀테크 산업의 주요 이슈와 최근 개정된 데이터 3법 및 마이데이터 활용방안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아카데미는 3개 세션으로 진행, 첫 번째 세션은 국내외 핀테크 산업동향 및 규제·제도(핀테크지원센터 경영기획실 황인덕 실장), 두 번째 세션은 NPS 디지털 R&D전략(국민연금공단 디지털R&D기획단 김태영 전문위원), 세 번째 세션은 마이데이터와 스케일업 방안(최원식 마켓포럼 대표) 순으로 진행됐다. /유호상 기자